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5년 2월 18일

CUOMO 주지사, 뉴욕이 미국에서 또 다시 사과 생산 2위와 포도 생산 3위 주로 재등극했음을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USDA의 추정에 따르면 뉴욕이 미국에서 다시 한 번 사과 생산 2위와 포도 생산 3위 주에 올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은 작년에 약 12억6,000파운드의 사과와 188,000톤의 포도를 생산하여 총 3억5,840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순위는 일련의 기록적인 농산물 수확과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농산물에 대한 유례없는 국제적인 인식에 뒤이어 나왔습니다.

“뉴욕은 세계 최고의 농산물을 일부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우리 뉴욕주가 미국의 농산물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부문은 경제를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뉴욕이 비즈니스에 문을 열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추정치를 보면 지난 해 캘리포니아와 워싱턴만 포도 생산에서 뉴욕을 앞서고 있고 워싱턴만 뉴욕주보다 더 많은 사과를 생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와인산업의 성장이 지난 10월 뉴욕을 Wine Enthusiast Magazine가 “올해의 와인 생산지”로 선정한 요인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다른 요소로는 와인의 품질과 크게 향상된 비즈니스 풍토가 있습니다. 특히 Cuomo 주지사의 지원을 받은 지난 4년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USDA 통계청에 따르면, 뉴욕은 40,000에이커의 사과 과수원이 있는 곳입니다. 사과재배업자들은 1에이커 당 평균 31,500 파운드의 사과를 생산하였습니다. 지난 해 수확량은 총 2억8,900만 달러로, 2013년에 비해 22% 증가하였습니다. 뉴욕은 포도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37,000 에이커에 달합니다. 매우 혹독한 겨울을 보낸 후 포도재배업자들은 뉴욕주 역사상 최고의 수확을 기록하면서 2014년 1 에이커 당 5.08톤의 포도를 수확하여 총 6,940만 달러의 판매고를 거두었습니다.

뉴욕주 농업장관인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과와 포도 산업은 뉴욕 농업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농산물입니다. 2014년에 성공적인 수확을 올린 두 농산물에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농업이 잘 되면 뉴욕 경제도 잘 나갑니다. 이곳 뉴욕의 농업은 밝은 미래가 엿보입니다.”

Cuomo 주지사의 Taste NY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에 있는 Thruway 휴게소와 Taste NY 스토어에서 그리고 뉴욕시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에 있는 International Restaurant and Foodservice Show of New York와 Syracuse에서 열리는 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 뉴욕 사과 산업을 홍보하였습니다. 많은 사과 농장과 사과주도 제품에 Pride of NY이라는 라벨을 자랑스럽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Cuomo 주지사는 오직 뉴욕주에서만 재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농장 사과증류주에 새로운 라이선스를 붙이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새 법은 뉴욕주 사과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고 뉴욕주에 11개 농장 사과증류주를 탄생시켰습니다.

뉴욕 사과는 Cortland, Empire, Fuji, Gala, Golden Delicious, McIntosh, RubyFrost, Zestar 등 20여개 품종으로 연중 내내 생산됩니다. 뉴욕사과협회에 따르면 사과 1개(약 80 칼로리)는 심혈관 및 소화기 계통의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를 1/5 함유하고 있고 무지방, 무나트륨 또는 무콜레스테롤입니다.

뉴욕사과협회장인 Jim All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과 생산에서 2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재배 조건과 가장 맛있는 사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는 넘버 원 사과로 통합니다. 눈이 내릴 수는 있지만 뉴욕 사과, 사이다와 다른 사과 제품은 연중 내내 식품업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에서 의뢰한 최근 경제 영향 연구에 따르면 이 업계는 48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줄 것이며, 매년 530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뉴욕주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계는 14억 달러에 달하는 임금과 함께 25,000개의 정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Taste NY 역시 와인과 포도 산업의 홍보를 돕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5개 뉴욕 와인러리가 Boston Wine Expo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엑스포는 지난 주말 북동부에서 열린 최대 와인 관련 행사 중의 하나였습니다.

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의 회장 Jim Trezis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4년도 뉴욕 포도 수확은 상대적으로 서늘한 봄과 여름에 이어 겨울 동안 업스테이트에서 세 개의 ‘극소용돌이’ 행사 중 가장 추운 혹한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확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9월은 포도가 익는 데 마술과 같은 달이었습니다. 포도의 맛이 너무 좋았고 생산량도 일찍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톤수로 보면 지난 해에 비해 9% 낮았지만 이는 2013년이 최고의 수확을 기록했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보면 매우 만족스러운 해였습니다.”

뉴욕은 1996년 이후 매년 사과 생산에서 2위를 차지했고 1987년 이후에는 매년 포도 생산에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996년은 뉴욕주가 2위를 경험한 적이 있어 예외에 해당하지만 말입니다.

또한 뉴욕주는 전통적으로 블루베리, 복숭아, 배, 딸기, 스위트체리, 타르트 체리 생산에서 미국에서 상위 10위에 오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2014년, 뉴욕은 배 생산에서 4위, 타르트 체리에서 5위, 스위트체리에서 8위, 딸기에서 9위, 복숭아와 블루베리에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